

장흥 '산림문화박람회' 11~20일 개최

탐진강변·편백 숲 우드랜드 일원...임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지향적 산림정책 홍보...생활목재 산업화 추진



다. 또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생활목재 산업화를 위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산림문화박람회는 산림조합 조합원이 보유한 탄소배출권을 확보, 행사 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를 상쇄시키고 조합원들을 포함한 박람회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호남지역 최초의 탄소중립 친환경 박람회로 개최된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문화박람회를 통해 산림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시키고 개최지 장흥군의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 공공비축미 5543t 매입키로

장흥군이 올해 공공비축미 5543t을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 매입 품종은 새일미, 신동진 2개 품종으로 매입계획 물량은 5543t(13만 8580포대·40kg 조곡)이다. RPC 산물벼 매입품종은 신동진 단일 품종만 매입한다. 올해는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한 농가 인센티브 물량은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 지자체 배정 물량과 시차를 둔다. 매입 시기는 산물벼의 경우 다음 달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건조벼의 경우 다음 달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별 매입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정곡 80kg)을 조곡(벼 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중간정산금 3만원은 농가로부터 수매 후 즉시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12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현포장제 사용 금지,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품종검정제 등 전년도 달 라진 점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모든 출산가정 지원

일반가정은 이용료 30% 혜택

강진군보건소는 다음 달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지원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강진군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가족, 중증장애인 산모에게 2주간 이용료 154만원의 70%인 107만8000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늘려 강진에 거주하는 일반 가정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30%(2주 기준 46만2천원)를

지원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올해들어 현재 출산가정 117가구 중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등 25가구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했다. 이송욱 강진군수는 "군 모든 출산가정이 좋은 시설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면서 "타 시군으로 산후조리하러 다니는 불편 없이 강진에서 출산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에 개원한 강진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은 10개의 산모실, 신생아실, 좌욕실, 다목적실, 휴게실 등 깨끗한 환경과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도선국사 탄신을 기념하는 '제14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가 5일 월출산 도갑사에서 열린다. 지난해 13회 문화예술제 모습.

영암 도선국사 탄신 기념 '문화예술제' 연다

5일 월출산 도갑사에서 사시예불·산사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

영암군은 신라 4대 고승이자 풍수지리의 대가로 잘 알려진 도선국사 탄신을 기념하는 '제14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5일 월출산 도갑사에서 연다. 행사는 사시예불, 봉축 법요식, 산사음악회 순서로 진행되며 산사 촬영대회, 천분부처님 사진전시회, 도갑사 포토존 등

부대행사가 열릴 계획이다. 특별무대에서 펼쳐지는 산사음악회는 청학동 김봉근 훈장님과 국악자매, 맨스팀 플라워이브디, 진이랑, 김택진, 천재원, 국악인 오정에, 트롯여왕 김수희 씨 등이 출연해 깊어가는 월출산 도갑사의 가을을 노래한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영암군 관계자는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는 지역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해 가는 영암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가을 산사에서 펼쳐질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을 즐기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갑사는 신라 말 도선국사가 머물렀다는 연기 설화가 전해지고 있으며 국보 제 50호로 지정된 영암 도갑사 해탈문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재가 소장돼 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재가 암환자·가족 대상

영암군, 힐링프로그램 운영

영암군은 지난 26일 재가 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희망 나눔! 행복 두배! 란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영암군은 보건소 주최로 암환자에게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천연염색과 경락 마사지, 한지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와 함께 분기별로 운영하는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을 통해 암치료 경험과 식이요법 등 암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있다.

영암군 보건소관계자는 "재가암환자 300명을 등록해 정기적 방문간호, 맞춤형 보건교역서비스 제공, 영양제 및 영양 보조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암 의료비 지원 연계로 재활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강진군도서관-교육지원청 MOU 체결

양질의 독서환경 조성·독서교육 활성화와 공동 추진

강진군도서관이 최근 지역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강진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청과 도서관이 상호 협력하여 양질의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독서교육 활성화 및 문화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활용 협조를 비롯해 도서관 동아리 및 독서심리상담사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또 그림책 읽어주는 모임으로 구성된 '그녀스' 회원 30명과 강진군 독서심리상담사 40여명의 회원들이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책임은 방법과 교육상담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유재현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양 기관의 업무협약이 지역에 독서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문환 강진군도서관장은 "학생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의 폭을 넓히고 삶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